# "젊은 입맛을 잡아라"

## 장수 식품의 변신
## '안성탕면' 쌀 첨가

농심 '안성탕면'은 쌀을 첨가한 면과 젊은 감각의 포장 디자인 광고를 선보였다.

식품업계 장수 브랜드들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젊은 층 사로잡기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지 30~40년 넘은 장수 식품 브랜드들이 새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기존에 없던 맛을 선보이는 등 신선한 시도를 하고 있다.

농심이 1983년 출시한 '안성탕면'은 쌀을 첨가한 면과 젊은 감각의 포장 디자인 광고를 선보였다.

면에 쌀을 첨가하고, 면 두께는 1.6㎜에서 1.7㎜로 늘려 구수한 맛과 쫄깃한 식감을 한층 살렸다. 패키지 디자인은 젊어졌다. 주황색 배경과 양은 냄비 등 고유 느낌은 유지하면서 조리예 그림을 앞으로 드러냈다.

안성탕면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광고로 유명한 농심라면이 주력이던 농심이 처음 '탕(湯)' 개념을 적용해 내놓은 라면 제품이다.

이듬해 연매출 200억원을 넘어섰고, 1997년부터 줄곧 연매출 1000억원을 올리고 있다. 농심 측은 이번 변화로 20~30대 소비자를 적극 공략한다는 포부다.

안성탕면과 같은 해에 출시된 롯데제과의 '꼬깔콘'은 최근 새우튀김과 마요네즈소스 맛이 느껴지는 새우마요맛을 출시했다.

꼬깔콘은 지난해 출시 32년 만에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장수 과자다. 고소한맛, 군옥수수맛, 매콤달콤한맛, 허니버터맛 등 다양한 맛을 갖추며 소비자들 니즈를 반영해왔다.

이번 시도 역시 최근 새우마요 튀김 등 새우마요 요리가 인기를 얻고 있는 최신 소비자 입맛 트렌드를 반영했다. /이성주 기자

# 1인 가구 증가에 냉동밥 소비 ↑

비비고 곤드레나물밥과 취나물밥.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냉동밥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CJ제일제당은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을 기준으로 냉동밥 시장조사를 분석한 결과, 냉동밥 시장이 매년 5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89억원 수준이던 냉동밥 시장은 2014년 200억원대, 지난해는 3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3년 만에 2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업체 측은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으로 가열만 하면 잡밥, 지역 맛집 요리까지 재현할 수 있고 유통기한이 길어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새우볶음밥, 치킨볶음밥, 김치볶음밥 등 일반적인 메뉴 중심에서 나물밥, 영양밥 등 다양한 품목으로 시장이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나물밥류도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게 성장했다. 나물밥류 시장은 2014년 16억8000만원 규모에서 지난해 48억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실제 CJ제일제당이 지난해 7월에 선보인 '비비고 곤드레나물밥'과 '비비고 취나물밥'도 출시 6개월 만에 25억원 수준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미국의 냉동식품 시장 규모는 38조원, 식문화가 비슷한 일본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국내 냉동밥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이성주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전략산업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는 전략산업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나선다.

전략산업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내 기업의 R&D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총 35개사에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지원 및 과제 발굴과 기획지원 등을 지원한다.

먼저 기업진단을 통해 문제점 도출 후 해결방법과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방법을 컨설팅한다.

또 기획과제 작성 전문가를 선정해 기술개발 아이템 발굴·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신광영 기자

## 전북주택금융공사, 도민 대상 은퇴금융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이화균)는 은퇴준비에 관심이 있는 전북지역민을 대상으로 은퇴금융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의는 은퇴와 관련한 금융지식과 생활정보로 꾸며졌다.

주 내용은 ▲지출과 세금관리 ▲은퇴준비와 재무설계 ▲소득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자산관리와 위험관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법률 정보 등이다.

일정은 오는 5월 26일부터 총 6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실시되며 전주시 서신동에 위치한 교직원공제회 빌딩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50명 내외로 모집하고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공사가 소정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신청방법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063-249-2779)에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 쌍용건설, 대졸신입사원 공채

쌍용건설은 오는 22일까지 대졸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채용 부문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설비, 플랜트, 안전, 관리 분야로 약 50~60명가량 채용할 전망이다.

지원자격은 올해 2월 졸업자 및 졸업자 중 4년제 대학교 이상 해당 분야 전공자이다. 해외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우대한다.

서류전형에 이어 직무적성검사와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의 순서로 전형이 진행된다. 단계별 합격자는 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ssyenc.incrui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3433-7206, 7208 /이성주기자

# 도내 2월 고용률 전년동월비 0.2%p 상승

## 취업자는 85만 3000명
## 경제활동인구 증가 원인

전북지역 2월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0.2%p 상승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2월 취업자는 85만3,000명으로 55.7% 고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4만6,000명(55.5%) 대비 0.2%p 증가했다.

고용률 증가 원인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6년 2월 경제활동인구는 8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6,000명(1.8%)이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1만명(1.9%), 여자 6,000(0.8%)가 상승했다.

실업률도 늘어났다.

2016년 2월 현재 실업자는 3만명(3.4%)이며 전년동월 2만2,000명 대비 0.9%p가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8,000명, 도소매숙박음식업 4,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판매종사자 1만2,000명, 기능종사자 9,000명, 관리자 1,000명이 감소 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29만명으로 1만4,000명(4.9%)이 증가했고 임금근로자는 56만3,000명으로 7,000명(1.2%)가 감소했다. /신광영 기자

# 군산 미장 대원칸타빌 '관심'

## 805세대 5월 준공예정

(주)대원이 군산시 미장도시개발지구 4블록에서 분양예정인 '군산 미장지구 대원칸타빌'이 다양한 단지 내 커뮤니티와 특화시설을 도입해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5월 준공예정인 군산미장지구 대원칸타빌은 지하1층, 지상 16~25층 10개 동, 총 805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59㎡ 78세대 △65㎡ 91세대 △74㎡ 288세대 △84㎡ 274세대 △101㎡ 70세대 △128㎡ 4세대로 구성돼 있다.

군산을 대표하는 대규모 공원인 수송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단지 동쪽으로는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여가활동을 즐기기 좋다.

또 롯데마트 등 생활환경과 시청, 법원 등이 인접해 있어 행정업무 시설을 이용하기도 용이하다.

이밖에 초·중·고등학교와 군산시립도서관이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국가산단, 새만금국가산단 등이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나들목(IC)과 군산고속버스터미널이 근거리에 있다.

견본주택은 군산시 미장동 57-12번지(미장초등학교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에는 1순위 청약, 25일에는 2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467-1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 전북銀,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 5월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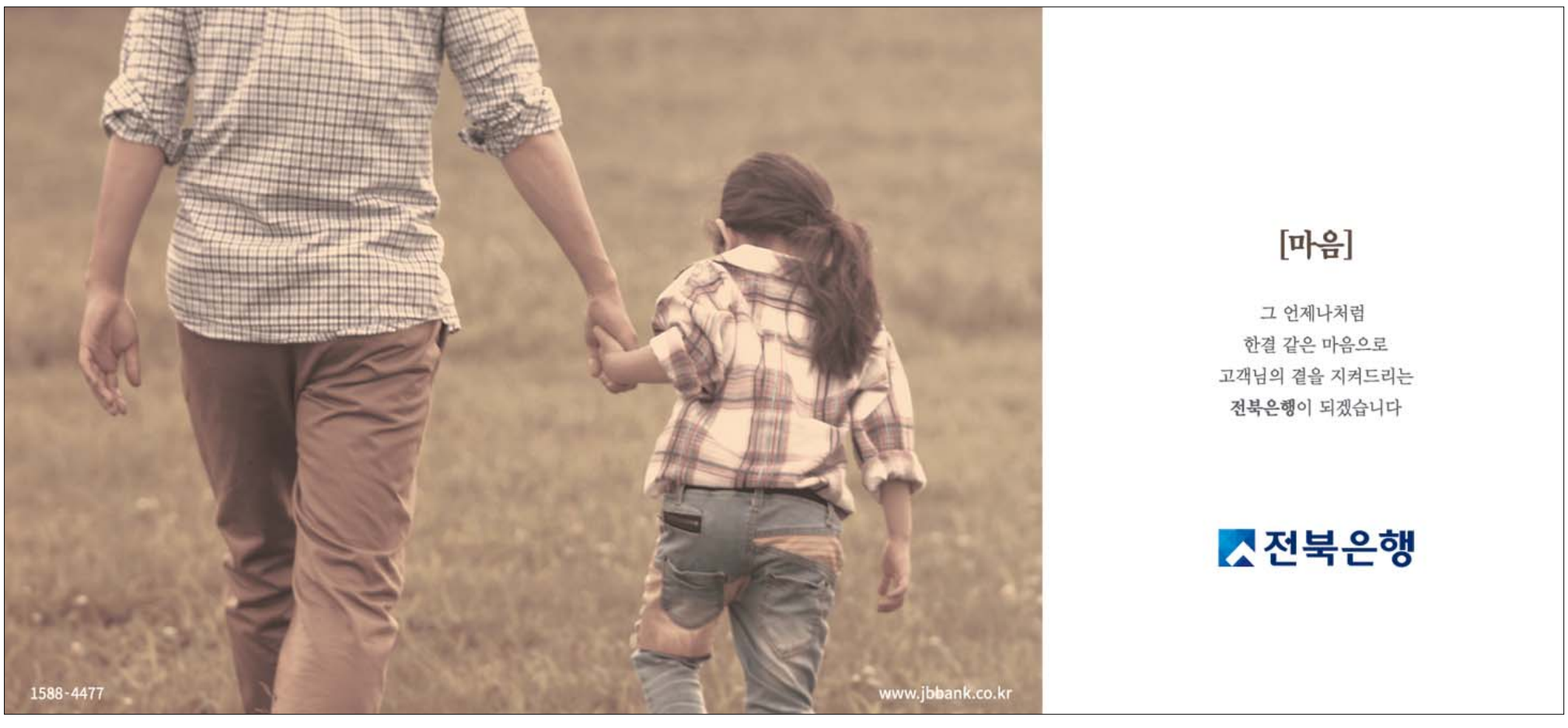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 이하 전북은행)의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 이하 프놈펜) 인수 절차가 빠르면 올해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인가상의 문제 등 각종 절차에 따른 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행보로 보여진다.

16일 전북은행 임 은행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께(2월23일) 캄보디아 프놈펜 측 관계자와의 인수 관련 면담에서 프놈펜 측으로부터 '(인수에) 의의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각종 인가와 정산상의 절차 등으로 인해 인수 시기는 늦어도 올 6월 쯤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은행은 프놈펜 인수에 있어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한국금융위원회 등의 인가와 인수 이전까지 변동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정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프놈펜이 캄보디아 상위 금융업체인만큼 캄보디아 문화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접근 중에 있다.

이에 전북은행은 전북에 유학중인 캄보디아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갖고 캄보디아인을 위한 전용 창구 계획 등 문화적 교류 활동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은행장은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유명한 (주)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북은행이 60%, (주)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4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경영권에 있어서 전북은행이 큰 비중을 갖고 전북은행 캄보디아 지점(프놈펜 지점)의 은행장 임명에 대해서도 전북은행이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은행장은 "지역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만큼 향후 3년 내에 3~4위권 업체로 만들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영수 기자